돌발해충 부화 시기 평년보다 빨라

전남 · 경남 내달 17~21일, 그 외 22~27일 부화 예상… 올 평균기온 상승이 원인

최근 농작물 재배 집단화, 새로운 작물재배, 이상 기상 및 농업환경 변화, 국가 간 농산물 교역 등으로 인해 돌발해충이 매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자체 개발한 해충발육 모형과 기상청 기상자료를 활용해 돌발해충 3종의 발생권역별 월동난 부화 시기를 분석한 결과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등 돌발해충 3종의 부화 시기가 평년보다 1~2일 빠를 것으로 예측했다.

19일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에 따르면 올해 측정된 1~3월 전국 평균기온은 2.7도로 평년(2.3도)보다 0.4도 높게 나타났으며, 월동난이 부화하는 5월 중·하순 무렵의 기온은 평년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평균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돌발해충은 전남·경남지역에서 5월 17~21일경, 그 외 지역은 5월 22~27일경에 부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예측결과는 평년과 비교해 1~2일 빠르고 작년보다는 4~6일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충별로는 갈색날개매미충이 전남·경남 5월 17일, 그 외 지역 5월 22~24일경 부화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미국선녀벌레는 전남·경남 5월 21일, 그 외 지역 5월 27일경 부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갈색날개매미충 성충 집단

또한 꽃매미는 전남·경남 5월 19일, 그 외 지역 5월 24~26일경 부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해충 발생량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일부 지역이 확산세를 유지함에 따라, 국부적으로 집중 발생하거나 신규 유입 지역에서의 피해가 우려 돼 지속적인 예찰과 제때 방제가 필요하다. 특히 갈색날개매미충은 산수유, 감, 사과, 대추에, 미국선녀벌레는 단감, 매실, 콩, 인삼에 심각한 피해를 주며, 꽃매미는 포도나무를 포함해 11종 이상의 과수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psis.rda.go.kr)의 등록 약제 참고를 바탕으로 발생이 많은 시기에 대상 작물과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살포해야 한다.

돌발해충 방제용 약제는 갈색날개매미충 55품목, 미국선녀벌레 73품목, 꽃매미 64품목이 등록 돼 있다.

장연옥 농업인(순창 인계면)은 "몇 해 전만 해도 꽃매미가 나무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는데, 농약도 공동으로 뿌리고 주변 가죽나무도 베어내 요즘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 안심"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에서 방제 지원을 해주면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진청 작물보호과 이세원 과장은 "돌발해충은 농경지와 인근 산림지에 주로 서식하고 산림지에서 부화해 농경지로 이동하는 행동특성이 있다"며 "이렇게 농림지에서 동시 발생하는 돌발해충들에 대해서는 지역별 부화 시기에 맞춰 1~2회 공동방제를 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당부했다.

/최대희기자

'배달의민족' 통한 전북 라이브커머스 진행

경진원, 우아한형제들과 협약 체결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은 19일 ㈜우아한형제들과 전북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배민아카데미에서 진행했으며, 이현웅 원장과 ㈜우아한형제들 권용규 가치경영실 상무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도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교육 및 컨설팅과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도내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다음달부터 전라북도의 고유한 지역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상품을 발굴해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입점을 지원하며, '배달의 민족'을 통해 전북 상품의 라이브커머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전국별미 카테고리에 유망한 소상공인 상품을 입점시킬 예정이다.

이현웅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내 우수한 식품이 전국적으로 홍보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판로확대를 위한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희기자

전북농협은 전북형 스마트팜 모델구축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해 19일부터 대상농가 현장실사를 시작했다.

전북형 스마트팜 모델 구축 시범사업 본격

전북농협, 시설하우스에 ICT 접목 자동화 활용해 추진

익산 · 김제 농가 3호를 시작으로 총 10농가서 현장실사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전북형 스마트팜 모델구축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해 19일부터 대상농가 현장실사를 시작했다.

이번 실시 예정인 시범사업은 스마트팜 육성사업으로 기존의 다양한 스마트농업 육성사업과 다르게, 생산자 조직의 한 단계 도약과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기존 농협 공선출하회 조직의 단동 및 연동 시설하우스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고 자동화·원격기술을 활용, 실시간 생육환경을 관리하는 모델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현장실사는 지난 4일 전북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다온정보기술(대표이사 노기수)과 농협 관계자, 농가 등이 함께 농가별 현장에 맞는 모델 구축 방안 모색으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다. 19일 익산시, 김제시 농가 3호를 시작으로 20일 삼례읍 농가 3호, 21일 임실군 농가 2호, 22일 정읍시 농가 2호 등 총 10농가에서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총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고 ICT 장비 설치 및 관련 매뉴얼 제정 등을 실시해 전북형 스마트팜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농협 전북본부에 관제센터를 두고 생육환경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참여농가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정재호 본부장은 "농가의 현장 상황을 농협과 ICT 업체가 면밀히 분석해 현장에 맞는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농가별 현장실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꼼꼼한 사업 준비로 전북형 스마트팜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전북 스마트농업 육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도-전북지재센터, 글로벌 IP 스타기업 지정서 수여

전북도와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 전북지식재산센터는 19일 지식재산 창출 지원을 위해 2022 전북 글로벌IP 스타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신규 지정된 ㈜바이텍(대표 이도행) 등 12개 '글로벌 IP 스타기업'은 지난 2월 28일까지 지역 내 소재·부품·장비, 지역주력 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접수를 받아 IP스펙트럼 진단 등 서류심사와 3단계의 세부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도와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가 협력해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도내 중소기업 중 지식재산 기반의 성장이 가능한 기업을 심사 발굴해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3년간 특허·브랜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관련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글로벌 IP 스타기업 지원으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했다.

지난해에는 1~3년차 글로벌 IP스타기업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특허맵(일반 및 심화), 브랜드&디자인 컨버저스, 제품디자인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등 연구과제 31건과 특허, 상표, 디자인의 해외권리화 지원 95건 등을 지원했다.

전북의 글로벌 IP스타기업들은 이러한 지원 등으로 매출 및 고용증가, 수출 대폭 증가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다. 특히, 해외 수출액은 317% 증가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유호상 기자

의료용 돼지 안전하게 공급

농진청, 병원균 차단 운반장치 개발

올해 초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인간에게 돼지 심장 이식이 이뤄지는 등 이종이식이 윤리적 문제 등을 해결하고 현실로 다가올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흐름에 맞춰 농촌진흥청은 의료용 돼지의 공급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병원균 차단 운반 장치를 개발했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의료용 돼지를 이종이식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안전하게 공급하는 데 필요한 병원균 차단 운반 장치를 개발해 특허출원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장치는 양압을 형성하는 송풍기를 설치해 필터를 거치지 않은 공기는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으며, 공기가 병원균 차단 운반 장치 내로 유입되거나 외부로 배출되는 통로에는 헤파필터(HEPA filter)를 설치해 병원균 차단 효율을 높였다. 또한 구급차의 환자 이송 간이침대를 접목해 차량에 쉽게 탑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무정전 전원 장치(UPS)를 달아 장거리를 이동할 때에도 병원균 제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은 2009년 국내 최초로 이종이식 연구용으로 초급성 면역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한 형질전환 돼지 '지노'를 개발했다. 이후 면역 거부반응 억제 기능이 강화된 돼지를 꾸준히 개발해 왔으며, 병원균 제어 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개발한 돼지의 조직이나 장기를 원숭이에 이식해 임상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현재 원숭이에 이식 후 정상적으로 기능을 유지 하는 기간은 췌도 181일, 신장 22일, 심장 60일, 각막 3년 이상이다. /최대희 기자

도, 안전보호융복합섬유 기술개발 · 역량강화 지원

전북도가 안전보호섬유산업 분야 도내 섬유기업의 기술개발(R&D) 역량강화 및 현장 기술애로 해결을 위해 '안전보호융복합섬유 기술개발·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전보호융복합 섬유'는 건설, 제조, 스포츠레저, 식품, 유통, 의료, 소방방재 등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소방복, 방탄복, 전투복 등 안전보호 섬유제품을 말한다.

관련 세계시장은 지난 2013년 약 340억불에서 2020년 555억불로 연평균 성장률이 7.3% 증가 추세인 유망 신성장 산업 분야이다.

'안전보호 융복합섬유 기술개발·역량강화 사업'은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의 전문 연구원와 인프라를 활용해 기술 역량이 부족한 섬유기업에 안전보호융복합섬유 분야의 기술사업화 및 기술애로를 지원하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오는 29일까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ex.re.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는 19일, 지사 회의실에서 공사감독 및 현장대리인 등 30여명이 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현장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안전·품질교육과 청렴이행각서 교환식을 가졌다.

남원 농어촌공, 청렴이행각서 교환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이충호)는 19일, 지사 회의실에서 공사감독 및 현장대리인 등 30여명이 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현장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안전·품질교육과 청렴이행각서 교환식을 가졌다.

특히,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대해처벌법의 제정목적, 적용범위, 의무이행 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현장 안전수칙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청렴이행각서 교환으로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 없는 청렴사회 구현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남원지사는 청사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작업장 내 도급사업 추진 시 시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직을 구성, 점검 및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사전계획 수립으로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해 공사와 시공사간의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충호 지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각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현장별 체크리스트를 생활화해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부패 없는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사와 시공사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건협 전북도회, 정기총회 불합리 규제 완화 등 강조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윤방섭)는 19일 오전 11시 전주상공회의소에서 대표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대내외적 경기침체로 인한 일감 부족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개방에 따른 수주경쟁 과열에 더해 철근, 시멘트 등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불안 및 가격인상 등의 도내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주요 현안으로 논의했으며, 해결방안으로 협회는 불합리한 규제 완화와 건설물량 확대 추진을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방섭)는 19일 오전 11시 전주상공회의소에서 대표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윤방섭 회장은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 됨에 따라 회원사와 소통을 강화하고 회원사간 상호협력을 지원해 도내 건설업계가 "혁신으로 상생건설, 비전으로 희망건설"을 실천하도록 이바지하겠다"며 "도민과 함께하는 건설단체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견인할 구심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021년도 결산 승인, 2022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하고, 대표회원제 운영규정 중 일부를 개정하는 등 총 4건의 부의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최대희기자